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일상

성공회대학교 202114110

조예나

나는 오늘, 100년 후의 나와 만난다. 100년 후의 나는 여전히 21살이다. 그렇다. 나는 2121년도에 와 있다. 나는 여전히 아이돌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원체가 집 안에서 각종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 근데 이게 뭐람? 집에서 보는 동영상을 vr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난 원래 vr을 보면 속이 어지러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vr이 내 집에 왜 있는거지? vr을 사용해보았다.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실제 내가 영상 속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것 같다. 샤이니 콘서트 안 가고 집에서도 이렇게 콘서트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니… 2020년도에 언택트 공연 했던 거랑 2121년도의 기술을 생각하면 정말 눈부신 발전이다.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네. 슬슬 출출해서 밥을 해먹고 싶은데.. 장을 봐야겠다. 엇 냉장고에 부족한 품목이 있으면 알아서 장을 봐주는 냉장고가 있잖아? 그리고 요즘은 배달도 로봇이 한다고? 2021년도엔 테스트 로봇만 몇 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네.. 아 귀찮아..밥 먹는 거 말고 빨래나 해야겠다. 앗 세탁기에 오늘 오후쯤 소나기가 내린다고 적혀있네? 그럼 햇빛에 널지말고 세탁기에서 한번에 탈수까지 다 진행해야겠다. 흠 세탁기는 이미 다 돌렸고… 키우는 식물 관리를 해볼까나… 엇 화분에 터치스크린이 설정되어 있네.. 어디보자… 물을 이틀 전에 줬다고? 원리가 뭐지..? 식물의 물 주기를 스스로 알고 물도 주는구나! 집안 모든 기기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스로 커튼을 조절해서 햇빛 양도 조절해버렸네..! 오 그리고 환기도 스스로 되네! 오늘 낮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니까 저녁쯤 환기가 되네! 지금은 환기가 안 되니까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가 알아서 정화모드를 시작하는구나! 너무 쾌적하다… 심심한데 집 밖 드라이브나 나가볼까나… 엇 버스가 왜 저러지? 아 내가 간 곳의 정보들을 예측해서 버스가 미리 와 있구나..!굳이 개인 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왔구나… 2021년엔 배차 간격 30분인 버스도 기다려봤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버스를 타기전에 휴대폰에 목적지를 찍으니 버스 알람벨을 누를 필요도 없이 그냥 최적의 경로에서 내려주네..! 2021년에 비해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구나… 정말 편한 세상이 왔구나. 그렇게 공원에 도착했는데 어떤 아이에게 공이 날아왔다. 안돼 꼬마야! 말릴 틈도 없이 몸 안에 부착된 웨어러블 기기가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경고음을 보내 꼬마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실현되기 위해선 2021의 나 자신이 더욱 갈고 닦으며 이 기술들의 상용화를 위해 힘써야 겠다.